

# 통영적십자병원, 낙후지역 찾아가는 무료순회 진료 펼쳐

온누리파워뉴스 | 승인 2025.09.19 22:05

거제 남부면 지역민 의료봉사·만성질환 교육  
온종일 걸리는 무료진료, 주민호응도 '최고'



통영적십자병원 공공의료사업팀이 거제시 남부면 갈곶마을에서 '무료순회진료센터'를 열었다.

통영적십자병원이 거제 최남단 남부면 갈곶마을에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펼쳐 낙후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범석 마취통증의학과장을 단장으로 13명의 공공의료사업팀은 지난주 해금강 커뮤니티센터에 임시 진료실을 차렸다. 남부면 전역에서 90여 명의 지역민들이 거주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노약자들은 영양제까지 제공받고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의 교육을 덤으로 공유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주)고려아연의 후원으로 진료, 처방, 영양제 투여 등 낙후지역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자리였다.



남부면 주민들의 종합병원 나들이는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가장 낙후지역이다. 따라서 찾아가는 무료 순회진료 서비스는 이들에게 특진기회였다.

지난 1955년 4월 체신부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이관된 통영적십자병원은 70여년 동안 통영권 유일의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매년 의료취약지역, 도서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통한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건강 인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통영적십자병원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고 밝혔다.



**온누리파워뉴스** sgh782003@hanmail.net

---

저작권자 © 온누리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